

2006년도 9월 24일 선관위 9급 국사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국사 정복!!! 정해영 선생의 국사광장(<http://1kuksa.net>=국사.kr=한글주소;정해영)에서

정답해설 내용은 정해영 선생의 정통한국사(곧 출간예정)의 내용 중 대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퍼 가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실제문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이 아닌 것은?

- 1) 종묘 2) 조선왕조실록 3) 수원화성 4) 불국사와 석굴암

정답 2) 조선왕조실록

상세해설 클릭--><http://1kuksa.net/unesco-kor.htm>

2 고려시대 화폐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 1) 자급자족의 경제유통 2) 국가와 귀족의 화폐발행 독점
- 3) 객주 등의 한정적 사용 4) 운송하기 힘든 금속화폐

정답 1) 자급자족의 경제유통

| | | |
|------|----|---|
| 화폐주조 | 배경 | 상업활동 활발 화폐발행과 사용 논의→화폐발행→이익금 재정수입 증대, 정부 경제활동 장악가능 하기 때문 |
| | 경과 | 史上최초로 명목화폐(이름뿐인 화폐로 실질가치 거의 無) 등장 건원중보(최초, 철전) ·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 주조 ※활구(은병)=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은 1근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로서 은병 하나의 값은 포 100여 필 |
| | 결과 | 국가 유통정책 실패(널리 유통되지 못함) 자급자족 경제로 인해 농민들은 화폐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으며 농민 인식부족=실질화폐(=현물 화폐=곡식, 삼베)를 더 선호, 귀족들도 국가의 화폐발행 독점 강제적 사용에 불만. 이 때문에 동전 등은 도시에서도 주로 다점이나 주점 등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를 사용 |

3 조선후기 정조의 정책이 아닌 것은?

- 1) 규장각 설치와 인재양성 2) 준론탕평책의 실시와 왕권강화
- 3) 문신재교육을 위한 시사결성 4) 화성건설과 대유둔전 국영농장 설치

정답 3) 시사(詩詞)는 중인들의 시인동우회를 의미한다. 문신재교육은 초계문신제를 통해서이다.

| | | | | |
|--------------|---|---|--|---|
| 준론 탕평책 | 의미 | 시시비비를 가리는 강력한 탕평책 영조 때의 탕평파를 준엄하게 비판했던 의리 명절파들을 대거 기용 한번 정해진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할 말을 하게 함 | | |
| | 배경 |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시파와 벽파의 대립속의 암살위기 그의 부친이 할아버지 영조에게 사적인 처형을 당해 10살 어린나이 세손(왕위를 계승할 손자)이 되었다. 그로부터 왕에 즉위할 때까지의 십수년간 한날 한시도 편히 취침을 취하지 못하고 거의 뜬눈으로 밤을 세웠다 한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노론계 탕평파(벽파)들의 집요한 암살음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 많은 밤을 하얗게 새면서 엄청난 독서를 했고 그를 통한 학문적 축적으로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한 임금이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철인(哲人)왕의 탄생을 본 것 이었다. 철인임금답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탕평책을 자신있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한 학문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탕평책과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다. | | |
| 민국건설 개혁정책 | 내용 | 초계문신제 | 초월적 군주로 군림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 양성 재교육 특히,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관리 가운데 능력있는 자들을 재교육(초抄는 선발의 뜻, 계략은 아뢴다의 뜻 즉 의정부에서 선발한 인재들 임금에게 아뢰면 임금이 그들을 문신으로 삼아 직접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 | |
| | | 흥재전서 | 184권 100책의 방대한 저술로서 학자군주로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과시 | |
| | | 규장각 육성 | 성격 | 붕당 비대화 억제 양반중심 국가운영 탈피, 小民보호 민국건설→왕권·정책 뒷받침 기구(문예부흥과 개혁정치 산실)로 정약옹, 유득공, 박제가 등의 진보적 인물 기용 |
| | | | 기능 | 본래 역대 왕의 글과 책수집 보관목적 왕실 도서관 기능기구로 설치 그러나 정조는 여기에 비서실 기능과 문한(공문작성)기능 통합부여, 과거시험 주관, 문신교육 임무 부여 |
| 구성 | 내각(창덕궁, 학사들의 집주소 겸 서적보관소), 외각(강화도, 병인양요 프랑스 약탈) | | | |

| | | | |
|------|-----------|--|--|
| | 장용영 설치 | 각 군영의 독립적 성격 약화 병권장악→ 왕권강화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 자신의 최대정적인 영조 때의 보수세력(주로 벽파)이 영조 신임을 바탕으로 은연중 군부에 자기세력을 심어 놓으니 정조는 당연히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친위대와 직접 군사권 장악의 필요절감 | |
| | 화성육성 | 성격 |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자금도시로 육성 |
| | | 건설 | 서양의 건축기구 참고 정약용 등 실학자, 거중기, 녹로 제작 최신의 과학적 공법동원 |
| | | 구성 | 행궁(行宮), 장용영의 외영, 국영농장(대유둔전) 설치 화성경비 총당, 수리시설개선 |
| | 행차 | 배다리 건설→정조, 화성행차시 일반백성들과 접촉기회 확대 이들의 의견정지에 반영 | |
| 계지술사 | 의미 | 뜻을 유지하며 일을 한다. 즉 전통문화 계승, 중국·서양과학기술 수용 국가경영혁신 | |

4 최초로 100리를 1척으로 축소한 우리나라 전체지도를 만들어 지도제작의 과학화에 기여한 사람은

- 1) 양성지 2) 정상기 3) 김정호 4) 이회

정답 2)

| | | | |
|----------|----------|--|---|
| 지도 편찬 | 민간 지도 | 특징 | 모눈종이 사용 지도도 유행 지도제작 한층 정밀, 음양오행의 풍수사상에 입각 →국토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해(백두산을 사람머리, 백두대간을 척추로, 제주도 대마도를 두 다리에 비유) |
| | | 내용 | 동국지도; 정상기, 최초 백리척 사용→지도제작 과학화 기여, 백리척 지도는 그 후 널리 유행 |
| | 세계 지도 | 의의 | 조선정부는 세계지리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 소유, 이를 토대로 중국중심 세계관 극복 |
| | | 내용 | 곤여만국전도·양의현람도(마테오리치의), 페르비스의 곤여전도, 천형도, 구라파국여지도 |
| 수입 전래 | 활용 |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이런 지도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가 중국에 대한 지리인식이 과장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세계 50여국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서양지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 |

| | | |
|-----|------|--|
| 김정호 | 편찬내용 |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3대지리서(동여도지, 여도비지, 대동지)편찬 |
| | 편찬의의 | 기호(記號)화 방법도입 지도제작기술 과학화, 그동안 국가만 독점하던 정밀 전국지도 목판으로 대량인쇄 대중보급 지도의 대중화에 크게 공헌 |

5 장면내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4-19혁명으로 등장한 장면정권은 국민의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 2)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활발이 진행되었다.
- 3) 국가의 발전을 최우선시 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했다.
- 4) 국토개발 계획에 착수했다.

정답) 1)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임했다.

| | | | | |
|--------------------------|------------------------------------|---|---|--|
| 4·19 혁명 | 배경 | 3. 15 정부통령 선거의 노골적 부정 즉 민주당 후보 조병옥 선거 직전 급사, 단일후보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온갖 부정자행(40% 사전투표, 3인조 혹은 5인조 공개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 국민적 분노 폭발 | | |
| | 과정 | 국민적 시위 전국으로 확산(대구→부산→서울→ 마산의 최루탄 맞고 사망 김주열 시체 바다에서 발견 분노 절정)이제 시위목적은 부정선거 항의에서 독재정권 타도로 발전 대학생 주도 시민, 고교생 등 대규모 시위 일부 대통령 관저 경무대로 돌진 중 경찰의 총격으로 100여 명이 사망 하는 유혈사태 발전 최학의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 | |
| | 결과 | 자유당 정권 붕괴 | 이승만 대통령직 사임→외무장관 허정 수반으로 과도정부 수립→야당의 주장과 여론에 따라 내각제와 양원제 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에 의거 총선거(7. 29) 실시 | |
| | | 총선거의 결과 | 민주당, 민의원·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대통령 윤보선 선임, 국무총리 장면임명 실권 장악 | |
| 정치체제 |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민의원·참의원) 지방자치 실시 | | | |
|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의 정 치운영 | 규제완화 | 각계각층의 누적된 요구 한꺼번에 분출, 통일논의와 진보적 정치활동 재개 | | |
| | 통일운동 | 배경 | 민족주의 열풍→통일운동 활성화(대학생층 선도) | |
| | | 내용 | 대학생층 | 민족통일연맹 결성, 남북학생회담 판문점 계획 시도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한국문제는 한국인 손으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자” |

| | | | |
|-----------|--|--|--------------------------|
| | | 혁신정치인 |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주장 |
| 장면 정부의 부담 | 처벌문제 | 자유당정부의 부정축재자와 부정선거 원흉에 대한 처벌요구 | |
| | 경기침체 | 실업자 240만에 이름, 1960년 당시, 경인지역 공장 80% 조업중단, 200만농민 보리고개(식량난) | |
| | 국민기대 |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파싸움에 휘말려 대통령윤보선을 중심으로 민주당 구파 독자정당 결성 | |
| 장면 정부의 노력 | 경제제일주의 표방 국토개발사업 착수, 장기경제개발계획 성안(成案), 다음해 시행키 위해 재원확보 노력 | | |

6 고려시대에 신분제도로 옳게 설명한 것은?

| | |
|-----------------------------|---------------------|
| 가) 백정은 농사짓는 농민이다. | 나) 상인, 공장은 양인이다. |
| 다) 양인은 잡업 등의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 르) 노비는 모계쪽 영향만 받았다. |

- 1) 가나 2) 가다 3) 나다 4) 나르

정답 1) 백정에 대한 상세해설은 ---><http://1kuksa.net/bekjung.htm>

7 흥선대원군 시행정책이 아닌 것은?

- 1) 비변사 폐지 2)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회복 3) 균역법 개혁 호포제 실시 4) 대전통편편찬

정답 4) 대전회통이다.

| | | | |
|------------------|------|--|---|
| 대원군 내정개혁 1863-73 | 개혁방향 | 대내적 | 세도정권의 모순을 시정, 실추된 왕권의 회복 → 전제왕권 회복과 부강한 왕조 국가의 중흥 고종이 아직 12세의 소년이였으므로 그의 부친 대원군 이하응이 실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주도. 대원군은 세도정치하에 눌러 있으면서 당시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던 상인층, 부농층 및 수공업자의 여망을 받아들여 광범위한 정치·사회개혁을 추진하니 실로 정조사망이후 60여년만에 신선한 개혁의 바람 이 다시 일어남 |
| | | 대외적 | 반외세, 쇄국정책 → 병인양요(프랑스와 전쟁, 1866), 신미양요(미국과 전쟁, 1871) 직후, 척화비(斥和碑) 건립 : 양이침범(洋夷侵犯) 비전즉화(非戰則和) 주화매국(主和賣國) |
| | 개혁내용 | 인사정책 | 외척세도와 벌열정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안동 김씨를 비롯한 벌열들을 가급적 권력에서 배제 당파·신분 불문 능력본위의 인물 기용 (폭넓은 정치기반 확보)더 나아가 무신들도 등용 이들의 권한을 확대하여 문치주의의 말뚝 시정 도모 |
| | | 서원 정비 | 국가재정 악화(면세, 면역의 특권)·붕당근거지, 여전히 당론 유지 왕권 견제, 백성수탈(세도정권과 타협 → 징세권 획득)→노론의 정신적 지주인 만동묘·서원 철폐 납세명령(600여 → 47개)→양반유생 반발 →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백성을 해치는 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 강력한 개혁의지 표명 ※만동묘;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낸 명나라 신종과 마지막 황제 의종 제사사당(1703 속종) 만동이란 물이 만 구비를 깎아 흘려 최후에 동해로 유입한다는 존명의식 표현 폐단심화(면세전 확대 국가재정악화, 면역인정 지방사족 균역의 기피 이용) |
| | | 민생안정 국가재정 증대 및 과세균등 | 양전사업 실시 양안(토지대장)에 빠져 있는 은전(숨어있는 토지 즉 탈세지)을 등록 호포(戶布: 모든 가가호호에 군포를 부과)실시→ 양반에게 군포 징수 사창제(社倉制: 마을 “사”, 창고 “창” 즉 민간 자율 춘대추납을 위한 곡식창고) -면민들의 공동출자에 의해 운영→탐관오리와 토호의 중간수탈(환곡의 폐단) 억제 ※환곡의 폐단; “환”은 반환의 뜻이고 “곡”은 곡식의 뜻 즉 농민이 국가에 봄에 빌려 가을에 반환하는 곡식의미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빈민구제의 목적보다는 중앙이나 지방관청의 재정보충 목적으로 강제성을 띠며 관리들의 부정부패 심화) 결과 국가재정 10년을 지탱할 만큼의 여유 증대 |
| | | 정치제도 | 세도정치의 중심기관이던 비변사 철폐 → 의정부(행정)와 3군부(군사)로 분리 |
| | 기타 | 법전정비(대전회통, 육전조례), 경복궁 중건(왕실권위 회복), 국방강화(삼수병강화, 서양화포기술도입) | |
| | 부작용 | | 경복궁 중건사업과 군비확장을 위한 과중한 세금부과(원납전), 화폐남발(당백전 발행), 청전(淸錢)을 수입 유통, 심도포량미(1결마다 1두씩의 특별세)징수→물가등귀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혼란 야기, 토목공사에 무리하게 인력동원→백성의 원성(처음에는 백성부담 최소화 노력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 절반이상 소실이후 강경선화) ▶원납전: 형식적으로는 백성이 원해서 납부하는 일종의 기부금이나 실제로는 강제성을 띤 세금성 모금을 의미 ▶당백전: 상평통보 100배 가치에 해당하는 고액화폐를 의미 즉 종전까지 1냥짜리 화폐를 유통시키다가 갑자기 그 100배에 해당하는 100냥짜리 고액화폐 당백전을 찍어내어 화폐가치의 하락을 초래 |
| | | 의의·한계 | 전통적 통치체제 재정비 국가기강 확립 민생안정에 기여했으나, 전통체제 안의 개혁이라는 한계를 극복 못함 |
| | 외교정책 | 일본관계 | 국교단절 ; 명치유신(1868, 급진적 전면적 서구화 정책)이후 불손한 자세(상국행세) → 日, 정한론(한국정벌) 대두 |

| [Redacted] | | | | | |
|-------------------------|---|--|--|--|--------------------|
| 각 지역의 임시정부 | 서울(한성정부, 조선민국임시정부), 철산·의주(신한민국정부), 연해주(대한국민의회정부),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 | | | | |
| 합의 | 13도 대표의 명의로 구성된 서울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광복까지 권한 대행 | | | | |
| 의의 | ① 史上 최초의 민주공화정 (3권분립; 의정원, 국무원, 법원) ② 한국인의 이념적 정부로서 독립운동의 통찰을 시도 ③ 실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8·15광복까지 단절되지 않고 존재한 유일한 기구 | | | | |
| 형태 |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절충(한성정부안 수용-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 | | | |
| 활동 | 연통제 |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조직망 (국내의 각도·군·면에 특판·군감·면감을 두어 정부 문서와 명령 전달, 군자금의 송부, 정보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 | | | |
| | 교통국 | 임시정부의 통신기관으로 정보의 수집, 분석, 교환, 연락의 업무를 관장 | | | |
| | 군자금 조달 | 이룡양행(만주), 백산상회(부산), 애국공채 발행 | | | |
| | 외교활동 | 가장 역점-상해주재 강대국 교섭 , 파리강화회의 대표파견(김규식), 구미위원부(美 이승만) | | | |
| | 사료편찬소 | 한일사료 관계집 간행(독립의식 고취, 자주성, 민족문화 우월성) | | | |
| | 독립신문 |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의식 고취 | | | |
| 문제 점 | 임시 정부는 3·1 운동으로 분출된 조선 민족의 독립의 열망을 수렴하고 조직화해 궁극적으로 조국 광복을 위한 중심 단체로서 출발 민족의 기대를 모았으나 끝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러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시정부의 광복노선에 있었으니 바로 외교 독립노선 (광복군사령부, 광복군총영, 육군주만참의부 등을 통해 군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했으나 많은 제약과 한계가 따름) 때문이었다. 임시정부의 다수 인물들은 강대국에 대한 훌륭한 외교 전술에 의한 독립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오직 힘만이 통용되는 국제질서에서 미국같은 강대국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한다는 외교논리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자는 많은 강경파 독립단체들의 불만을 샀고 속속 이탈을 했던 것이다. 거기다가 외교독립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승만이 미국에 일본 대신 국제연맹에 조선을 위임통치하자는 제의를 하니 여기서 임시정부의 위상은(그렇지 않아도 외교론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번번이 실패를 거듭함)떨어질 대로 떨어져 급기야 임시정부 해체론이 대두된다 . | | | | |
| 단일임시 정부수립 1919. 4 | 분열 | 국민대표회의 1923 | 제의내용 | 이승만, 미국에 국제연맹 위임통치론 제의→ 신체호 등 북경의 무장투쟁론자들 이승만 불신임과 독립운동 방향전환을 논의 (1923. 상해 이승만 해임안) | |
| | | 개조파 | 임시정부 조직만 개조할 것을 주장(실력양성 우선과 외교활동 강조, 안창호 등)→창조파와 갈등 심화 결국 대회에서 탈퇴 | | |
| | | 창조파 | 완전 해체후 새정부 구성주장(원세훈, 김규식, 김창숙, 이동휘 , 박은식, 신체호 , 이상룡 등) 외교노선 불만 무장투쟁 주장 연해주로 이동→한국독립운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소련정부의 국외퇴거 요구로 새정부 좌절해산 | | |
| | | 현상유지파 | 김구, 이동녕 등 1925년 이승만 해임,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추대 이후 헌법개정(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 채택) | | |
| 침체 | 노선의 갈등 임시정부 이탈 | 1927년에는 주석이 국무위원 합의에 의해 정부를 운영하는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었다가 1940년부터는 주석중심제로 개편 이후 임시정부의 인적구성과 활동은 상당기간 침체 | | | |
| 활기 | 삼균주의 수용 | 의미 및 수용 |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개인, 민족, 국가의 균등을 의미)수용 | | |
| | | | 균권(均權)·균산(均產)·균학(均學)으로 표현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간에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민족·국가 간의 균등을 1931년 임시정부의 '대외선언'에서 주장 | | |
| | | 배경 | 이때는 민족해방운동 내부의 좌·우익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다가 좌절되어가는 시기였다. 조소앙은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상황을 겪으면서 중국 쑨원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캉유웨이의 대동사상(大同思想)·무정부주의·사회주의 등 여러 사상들을 참고해 좌우 절충적 정치사상을 제시, 대립 타개도모 | | |
| | | | 영향 | 임시정부 등 우익 중심의 민족주의 운동세력에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한국독립당의 강령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1941년에는 임시정부의 건국이념 및 정책노선으로 채택, 1948년 신생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 | |
| | | 내용 | 개인균등 | 정치적 균등 | 보통선거제 실시 |
| | | | | 경제적 균등 | 토지국유와 대(大)생산기관 국유제 |
| 교육적 균등 | 국비 의무교육제(國費義務教育制) 실시 | | | | |
| 민족균등 | 민족자결(민족 자주권 인정의 토대를 바탕으로)에 의해 구현 | | | | |
| 국가균등 | 식민지정책과 제국주의 부정(모든 국가들이 상호침략을 금지) | | | | |
| 광복군 창설 | 1940년 외교노선에서 무장투쟁으로 변화 (중국, 중경) | | | | |

8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내외 세워진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해 수립되었다.
- 2) 민주공화정을 국가체제로 내세웠다.
- 3) 무장투쟁을 강조해 광복군을 조직했다.
- 4) 연통제를 실시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정답 3) 광복군은 중국 중경에서 1940년에 조직했다.(정답해설의 내용은 바로 앞쪽에)

인류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려 마지아니한다. 여성 문제는 그 중의 하나이다. 세계는 이 요구에 응하여 분연하게 활동하고 있다. 세계 자매는 수천 년래의 악몽에서 깨어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질곡을 분쇄하기 위해 싸워 온 지 이미 오래이다.…… 우리는 운동상 실천에서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지로 우리 자체를 위해 우리사회를 위해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해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9 다음지문과 관계있는 것은?

- 1) 근우회 2) 조선여성동우회 3) 한민애국단 3) 정우회

정답 1)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이다.

신간회에 대한 상세해설은 <http://1kuksa.net/sinkanhoi.htm> 정우회는--><http://1kuksa.net/jungwoohoi.htm>
한민애국단은--><http://1kuksa.net/haninekd.htm>

10 삼국의 불교발전에 힘쓴 승려의 활동 중 신라의 승려가 아닌 사람은?

- 1) 원광-세속5계를 지어 화랑도를 지도 2) 겸익-인도에 다녀와 계율을 소개
- 3) 원효-화쟁사상 4) 의상-화엄종 개창

정답 2) 겸익은 백제의 승려이다.

| | | |
|------------------------|---|---|
| 고구려 | 소수림(372)왕, 공인 이후 5C말-6C초 승려 승랑의 노력→삼론종(진리는 유有도 아니고 무無도 아닌 공空이라는 고차원 진리 강조) 발전 ※공(空=성性=중관中觀);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긴 가상(假想; 상대적, 일시적 모습)이며 영구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의미(=제법무아諸法無我) | |
| 백제 | 침류왕(384)왕, 공인 중국남조의 영향을 받아 왕실보다 귀족층에서 환영 엄격한 계율을 통해 개인의 소승적 해탈을 강조하는 계율종(대표적 고승 겸익) 성행 백제말기(무왕 600-641)에는 왕실의 비호속에서 호국적 성격을 강하게 띠→왕흥사, 익산의 미륵사(거대한 석탑 일부 잔존, 현재 복원사업 진행중) | |
| 신라 | 법흥왕(514-40)왕, 공인(이차돈의 순교) 왕실의 강력한 비호로 근왕(勤王: 왕에게 충성)불교 혹은 호국불교 로서 크게 진흥 | |
| | 불교식 왕명 | 23대 법흥왕에서 28대 진덕여왕(647-54)에 이르는 100여 년간 불교식 왕명→왕이 곧 부처(왕즉불王即佛)라는 사상 |
| | 불국토 사상 | 왕이 지배하는 동시에 부처님의 땅→전국토에 사찰건립, 국통(진흥왕 때 고구려 귀화승려 해랑을 최초 임명)·주통·군통을 두고 관리, 정치에도 깊이 관여하는 정신적 교사역할 담당 |
| | 황룡사9층목탑 | 선덕여왕, 대국통 자장의 건의 수용 높이 70여 미터의 달하는 9층탑 건립은 아홉 나라를 굴복시켜 조공을 받아낸다는 호국의 기원의미 |
| | 화랑의 세속5계 | 승려 원광, 화랑도의 계율로서 만든 것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과 전쟁에서의 무퇴강조, 화랑을 미륵불의 화신으로 간주 |
| 유학승려 원효 유식불교 연구 | 원효는 15세에 당에 가서 현장의 제자가 되어 유식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킴 ※유식(唯識)사상; 주관적 인식대상은 비록 공(空)하지만 인식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색色=유有=상相 장을 취함 즉 현상세계라는 것은 주관적 사유의 투영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의식의 흐름 즉 "아라야"식(識)뿐인 것이다. 즉 "아라야"식이 새로운 행업을 쌓음으로써 일정한 경향을 형성하고 이 | |

| | | |
|--|--|--|
| | | 형성에 의해 사람의 성격도 결정된다고 보았다. 현실적 차별성을 인정해 성불(成佛)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5가지의 부류로 나뉜다는 차별적인 인간관을 주장한다. |
|--|--|--|

11 갑신정변시 혁신정강 급진개화파와 거리가 먼 것은?

- 1) 국가재정 운영의 일원화 2) 사대적인 외교관계 청산주장
- 3) 토지소유제도의 개혁주장 4)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주장

정답 3) 개항이후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유일한 단체는 동학농민군들이다. 개항이후 여러 개혁비교-->

<http://1kuksa.net/kehang-kh-vt.htm>

| | | | | |
|------------------------|---|--|---|--|
| 김옥균 일파 갑신정변 1884 | 배경 | 청, 내정간섭 강화 | 조선정부 자주권 크게 침해 의미이나 일본의 침투 견제효과, 고종과 황후 측근세력은 일본에 대한 견제의 효과 기대 청과의 관계 우호적으로 지속→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보기로 해 일본의 재정, 군사적 협력으로 서구형 근대국가 도모 젊은 변법개화파 불안, 불만 | |
| | 실행 | 청-불전쟁으로 청나라 군대가 절반 정도 철수한 틈을 이용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명성황후세력을 타도하고 신정부를 수립(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일으킨 정변은 일단 성공) | | |
| | 개혁 내용 | 정치 | 청과의 조공관계 청산, 청에 잡혀간 대원군 귀국, 내시부·규장각 등 왕의 근시(까가이서 모시는)기구폐지 입헌군주제에 근접한 내각강화 근위대 창설, 순사제도 도입 근대적 경찰제도 확립 | |
| | | 경제 | 지조법(地租法) 개정, 재정기관을 호조로 일원화, 환곡폐지, 해상공국(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을 폐지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 도모 | |
| | | 사회 | 양반신분제도와 문벌(가문 지위를 바탕으로 관리등용)을 폐지 인재등용, 인민평등 실현 | |
| | 결과 | 실패 | 동도개화파의 요청 청국군대[1500명]개입 3일만에 붕괴(일본군과 총격전, 일본공사관 습격당함) | |
| | | 원인 | 1) 민중의 지지 결여(개혁내용의 부실 즉 토지 개혁이 없음, 일본에 의지) 토지개혁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들이 지주계급이기 때문이다. | |
| | | | 2) 청의 무력간섭 과 일본의 의구심(정변주체 세력의 나이가 25-31세로 너무 젊음) | |
| | 조약 체결 | 한성조약 | 조선과 일본, 조선정부 일본에 일본공사관 신축비용 지급 | |
| | | 텐진조약 | 청국과 일본, 한반도 파병시 상대국에 서로 통보 →동학농민전쟁 계기, 청일전쟁(1894)일본은 갑신정변 실패 후의 열세상황을 만회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 | |
| 의의 | 근대국가 건설목표의 최초의 정치개혁운동, 신분제도의 폐지 지세제도의 개혁 등 호소력 매우 큼 | | | |
| 한계 | 첫째 | 청과 손을 끊고 그 대신 일본과 손을 잡으려는 것은 민족의 자주독립과는 거리 | | |
| | 둘째 | 권력구조로서 규장각과 같은 왕의 근시기구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제시한 것은 것은 고종의 자주적 개화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취약한 내각을 일본이 조종할 수 있게 길을 터줄 위험 | | |
| | 셋째 |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데 절대 필요한 국방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제시없음 | | |
| | 넷째 | 자주독립을 바라면서 일본군대의 힘을 빌려 권력을 잡은 것은 매국행위나 다름없음 | | |

12 태조 이성계의 한양천도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 1) 고려부터 풍수상 명당지이고,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
- 2) 한강유역을 끼고 있어 교통상의 편리 때문
- 3)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
- 4) 백제의 옛도읍지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

정답 4) 지방색을 극소화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양을 택했다. 즉 삼국시대 어떤 한 왕조의 특정 지역이나 수도를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 | | | |
|------|--------|---------|---|
| 새 국호 | 조선의 의미 | 역사의 유구성 | 단군조선에서 역사의 유구성과 천손후예의 자부심, 정전제와 8교조(條敎)를 시행한 기자조선에서 도덕적 이상국가 도덕문명의 뿌리계승 역사의식 반영 |
| | | 민족통일 의식 | 단군조선은 삼국유민 모두 숭상의 대상→유민의식 청산, 민족통일 의식 고취 |

| | | |
|------|--------|--|
| 새 수도 | 한양의 의미 | 고려부터 풍수상 명당지, 한반도의 중앙위치, 교통편리(한강유역), 천혜의 요새(주변의 산), 지방색 극소(백제의 수도, 고구려, 신라 점령, 삼국문화 교류 수용) |
|------|--------|--|

13 다음 중 독립협회의 설명이 아닌 것은?

- 1) 국민계몽의 방안으로 독립신문을 발간
- 2)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자주민권운동 전개
- 3) 황국협회와 고종의 비협조로 해산
- 4) 구본신참의 원칙에 따른 개혁 추진

정답 4) 구본신참은 대한제국의 개혁 방침이었다. 대한제국 상세해설--><http://1kuksa.net/dehanjk.htm>

14 조선의 중립을 주장한 인물과 관계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오직 한가지 만이 우리나라를.....

- 1) 개화사상을 소개하기 위해 [서유견문]을 저술했다.
- 2) 영선사의 일원으로 청나라에 파견되었다.
- 3) 황준선의 [조선책략]을 조선에 소개했다.
- 4) 박문국 설립하고 한성순보 발행을 주도했다.

정답 1) 지문의 인물은 유길준이다. 그는 일본에 파견했던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다. 3)은 김홍집 4) 2차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박영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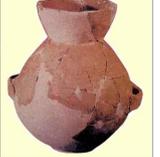
| | |
|-----------------|--|
| 조색책략유포 1881년 | 유생 이만손 등이 올린 영남만인소 를 시발로 해 전국유생들 잇달아 상소 조선책략의 내용비난 이것을 들어 온 김홍집의 처벌요구. 홍재학의 상소 (주화매국의 신료 엄벌 서양물품과 서양서적 소각요구) 정부는 상소의 대표자를 사형, 유배에 처하여 척사상소운동을 단호하게 억압. 이만손 유배, 홍재학 능지처참(왕까지 강력비판) |
| | ※조색책략 청나라 주일외교관 황준헌 저술, 일본 흥아회의 '아시아 연대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러시아를 방비하기 위해 조선은 친중(親中)·결일(結日)·연미(聯美) 외교책 을 써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가져와 고종에게 바쳤다. 이 책은 당시 외교정책에 대해 무지하던 조선정부의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줬다. |

| | | |
|------------------------------|--|---|
| 청국내정간섭 심화 | 조선속방화 안 | 원세개는 조선을 청의 속방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과 서양열강의 침투를 견제 |
| | 조선경제 침투 |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과 지방까지 휩쓸며 상리를 취하고 서울 한복판에 중국상가를 조성 청은 일본과 러시아 침투 특히 경계, 독일인 뮐렌도르프 외교고문 추천 뜻밖에 고종에게 친러정책 권유(청일양국 견제 왕실보호 목적 조·러비밀교섭→발각 파면, 대원군 귀국 친러파와 맞서게함)→외교고문 미국인 데니로 교대 그마저 친러정책 권유 친러경향의 고종폐위계획 |
| 조러통상수교 1884 | 조-러 이해관계 부합 | 조선 청의 지나친 내정간섭 견제→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노력,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 |
| | | 러시아 부동항의 확보를 위해 남하정책을 추진(청국의 조선수교 알선 거부) |
| 러시아 세력 확대 | 조선과 통상조약 계기 함경북도 경흥에 조차지를 얻고 능란한 외교관 웨베르를 공사로 보내 조선정부 안에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 세력 확장→영국불안(세계각지 러시아와 대립 동해안침투에 위기의식) | |
| 거문도 사건 영국, 거문도 점령 1885 | 배경 | 영국은 세계최초로 산업혁명을 완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세계 곳곳의 약소국을 식민지화 당시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 불릴정도 였는데 세계최대의 영토를 바탕으로 세계최대의 육군병력 보유의 러시아의 남하는 심각한 타격의미(식민지 상실우려) |
| | 결과 | 조선은 영국의 주권침범에 강력히 항의하고 청도 러시아와 일본의 파병을 두려워해 중재에 나선 결과 영국 1887년 거문도 철수(어떤 나라도 이곳을 점령치 않는다는 다짐을 받은 후) |
| 조선에 대한 | 주장 | 독일영사 부들러(1884 갑신정변 직후), 유길준(거문도사건 직후), 김옥균(갑신정변 직전) |
| | 결과 | 각각 복안이 달라 실현되지 않음 |

15 청동기 시대로 옳지 않은 것은?

- 1) 황하지역의 은-주 계열의 청동기와는 다른 독자적 성격
- 2) 비파형동검은 주로 세문경과 함께 출토
- 3) 기원전 4세기경 세련된 세형동검으로 바뀜
- 4) 빗살무늬토기가 여전히 사용되었다.

정답 2) 비파형동검은 거친무늬거울=한자식 표현은 다뉴조(多紐粗文鏡; 많을 '다', 끈, 혹은 띠 거칠 '뉴', 거울 '문경')과 함께 발견된다.

| | | BC 8000년 | (고조선 등 성읍국가 혹은 군장국가) BC 1000년 |
|--|---|--|---|
| 도구 사회 특징 및 유적지 평남상원검은모루 동굴 웅기굴포리 경기연천전곡리 공주석장리 충남제천 충남단양상시리(인골출토) 제주빌레못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땀석기 • 주먹도끼 • 스펀지돌 | <p>도구(돌, 거친 나무)=기술의 빈약 간석기 돌쟁이, 돌삽, 돌보습, 돌낫 개별노동 불가능 → 공동생산·분배, 씨족 공동체 생활 생산력 미약 → 잉여물 全無 → 평등사회 개인 토지사용 무의미 → 무계급(※ 계급= 토지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관계)</p>   <p>가락바퀴(방추치紡錘車) 빗살무늬토기</p> <p>유적지; 서울 암사동과 미사리, 부산 동삼동,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 봉산 지탈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샤머니즘(무격신앙)의 문자적 의미</p> <p>하늘(天)의 신(神) — 선신(善神): 행복과 번영 악신(惡神): 불행과 죽음</p> <p>축추는 무당모습 악귀를 물리치고 현세구복을 비는 의식</p> <p>땅(地)의 인간과 인간사회</p> <p>인간의 행복과 불행 등 미래의 운명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무당의 역할은 인간에게 불행과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악귀를 물리치고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태양신과 같은 선신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의식과 주문을 통해 비는 것이다.</p> </div> | <p>도구(정교한 목제 농기구=기술의 발달) 간석기 다양화 ※ 청동제 농기구 없음 농기구가 없는 제1차적 이유는 유물에서 출토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유로는 청동제련 기술의 미숙이라는 것이 지배적 학설이다. 청동의 예리한 면으로 종전의 거친 목제농기구를 정교하게 만들어 생산력을 증대시켰다. 가부장 중심 개별농사 가능 생산력 증대 → 잉여물 증대 → 불평등 발생 개인 토지사용화(사유재산) 진행 → 계급발생 → 갈등과 탐욕 → 전쟁 무질서, 혼란 → 질서유지 강력체제 및 체제 유지 힘 필요 → 국가(고조선) 권력탄생(증거=고인돌) → 선민사상(단군신화, 우월성 강조, 신에게 제사의식을 통한 권력유지 및 세습) → 지배와 피지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거친무늬거울 출토 지역(고조선의 영역과 일치)  <p>반달돌칼 미송리 토기</p>    <p>비파형동검 고인돌(고창, 강화도 유적지 2000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지정)</p> <p>거친무늬거울</p> |
| | 경제 사회 신앙 예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집 • 사냥 • 어로 <p>무리 이동</p> <p>동굴조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냥, 어로 계속 • 원시농경(조, 피, 수수) 및 목축 시작 화덕(취사·난방) · 직조술(베바늘, 가락바퀴) <p>무리이동 → 정착(농경), 부족사회(씨족단위) 족외혼, 폐쇄적 생활구역(훗날 동예의 책화)</p> <p>농경 → 정착 → 자연에 대한 경외(공경심과 두려움) → 애니미즘·토템리즘·샤머니즘</p> <p>조개껍데기 가면, 치레걸이</p> |
| (부여-삼한 연맹국가) BC 4세기 경 | | | |
| 도구 사회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제농기구 등장 → 농업생산력 비약적 증대, 청동기 의기화(주술적 의미) ※ 주술(呪術);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앞날의 좋고 나쁨을 점치고 행복을 비는 일 • 후기청동기(=초기철기) <p>명도전(중국의 화폐 → 중국과 교역) 붓(한자전래)</p> | | |

| | |
|----|--|
| | 세형동검(독자 제작=거꾸집 출토) 잔무늬거울 |
| 경제 | 농업 비약적 발달 저수지 축조(삼한 벼농사 널리 성행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제천의 의림지) |
| 토기 | 점토띠 토기, 적갈색 경질 토기 암각화=바위그림(경북 고령 양전동, 언양 천전리) |
| 사회 | 왕권미약-지방분권 · 가부장적 사회 심화 · 사유재산, 계급분화 심화 제정분리(삼한=소도) 농업발달과 밀접한 관련 |

16 가야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1) 금관가야는 경상도 내륙지방의 합천, 거창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 2) 초기에는 철이 풍부해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중계무역을 장악했다.
- 3) 4세기말에서 5세기초 왜를 격퇴하고자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세력이 축소되었다.
- 4) 5세기 후반 고령지방의 대가야를 맹주로 해 후기가야 연맹을 이룩했다.

정답 1) 금관가야는 내륙지방이 아닌 비교적 남해바다에 근접해 있는 김해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낙동강 하류의 변한지역에서는 철기문화를 토대로 농업생산력이 증대되어 점진적인 사회통합을 거쳐 2세기 이후 여러 정치집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세기경에는 이들 사이의 통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해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왕국으로 발전했다.** 이를 전기 가야연맹이라 부른다.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는 김



수로에 의해 건국되었는데, 그 세력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걸쳐 있었다.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문화가 발달했다. 또한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교통을 이용해 낙랑과 왜의 구수지방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이 발달했다.**

그러나 4세기 초부터 백제와 신라의 팽창에 밀려 전기 가야연맹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4세기 말~5세기 초에는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거의 몰락해 가야의 중심세력이 해체되고, 가야지역은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축소되었다.**

가야연맹도 5세기 초에 크게 변했다. 전기 가야연맹이 해체되면서 김해,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지역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그동안 후진지역이었던 북부지역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지의 세력은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5세기 후반 고령지방**

의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해 후기 가야연맹을 이룩했다. 6세기 초에 대가야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어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후 신라와 백제의 다툼 속에서 후기 가야연맹은 분열해 김해의 금관가야가 신라에 정복당했고, 가야의 남부지역은 신라와 백제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결국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하면서(562) 가야연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17 균역법 실시이후 초래된 재정결손에 대한 국가의 보충노력과 관계없는 것은?

- 1) 토지1결당 미곡 2두씩을 일종의 토지부과세 명목으로 거둬들였다.
- 2)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1필을 납부하게 했다.
- 3)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수입으로 보충하기도 했다.
- 4) 노비에게도 부담을 시켰다.

정답 4) 노비는 원칙적으로 균역을 지지않기에 국가에서 부담을 주지 않았다.

| | | |
|---------------|----------|--|
| 균역법실시 1750 | 사회 상황 | 17C말-18C초 농민의 균포부담의 절정 (16-60세, 45년간; 2필 부담/16개월) 농업생산력발달→상품화폐경제의 발전→국가지배층, 물질적 탐욕증대→총액제(국가가 토지와 인민을 정확히 파악치 않고 군현단위로 미리 정해진 수취총액을 담세자의 증감과 관계없이 공동부담)→토착 양반, 부농, 여러 방법(납속, 족보위조, 뇌물등)으로 균포면제, 힘없는 농민들만 모든 부담(인징=도망간 이웃의 균포, 백골징포=死者→生者, 황구첨정=어린애→어른으로 위조해 징수) |
| | 실시 계기 | 탕평책에 대한 비판이 팽배해지자, 탕평책은 국태민안(國泰民安;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탕평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당시 인민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줬던 균역제도(평민에게만 일방적 균포부담)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했다, 그래서 영조는 "나도 최고 양반이니, 균포를 내겠다. 이제부터 국법체계(경국대전에 근거)에 입각해 모든 가가 호호를 대상으로 균역의 의무가 있는 자들은 모두 균포를 내야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양반까지 균포를 부과하는 이른바 호포(戶布)제를 실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절대다수 양반들의 결사 반대(양반이 균포를 내면 양반과 상농의 구별이 없어져 신분질서기강이 붕괴를 가져온다는 성리학적 가치관을 강조) 에 부딪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초조해진 영조는 일종의 타협안(양반은 균포 부담을 면제시킨체로 농민의 균포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제시하니 바로 원래의 의미(양반까지도 균포를 부과해 균역을 균등히 함)와 모순된 균역법이었다. |
| | 내용 | 농민들의 균포 부담의 경감(2필부담/16개월→1필부담/12개월) 농민의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임으로써 발생한 국가예산의 결손을 여러계층에 분담 ① 종전, 왕실 수입이던 어세, 염세, 선박세→국고수입으로 전환(균역청에서 관할) ② 지주에게 토지1결당 2두씩→결작(전세화=전세처럼 쌀을 냄)부과 ③ 종전에 균포부담에서 빠진 상류층 부농→면포1필 부과(선무군관포) ※선무군관=균포 1필을 납부하는 선무군관은 양반층이 아니나 양반행세를 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지방의 토호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었다. |
| | 결과 | 국가수입은 줄지 않으면서 농민부담 경감, 상류층의 부담(선무군관포, 결작)으로 균역 다소 평준화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농민에게 돌아가고, 균적문란이 다시 심해지면서 농민부담 다시 가중. |
| 노비부담 경감 | 내용 | 공사노비의 신공-노(면포 2필), 비(1필반)→17세기 중엽부터 경감→1775, 노(1필), 비(부가세만 납부) |
| | 결과 | 노비와 양인의 신역부담 거의 비슷해짐 |
| 부세제도의 부작용 | 내용 | 비총법 (정부가 한해 농사의 풍흉을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 상황이 비슷한 과거의 예에 비추어 세금총액을 미리책정 할당)의 문제점→정부에서 결정하는 급재(면세, 과세)면적이 실지와 불일치 과부족 발생 |

18 다음 중 잘못 서술한 것은?

- 1) 1930년대 민족주의 사학이 조선후기 실학의 영향을 받았다.
- 2) 백남운 등의 사회 경제사학은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에 입각해 발전했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했다.
- 3) 실증주의 사학은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문헌고증을 통해 개별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려했다.
- 4)

정답 1) 조선후기 실학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이 펼친 조선학운동이다.

| | | | |
|------------------------------|-------|--|--|
| 조선학 운동 | 배경 | 1934년 시작 과거 민족주의 역사학이 지나치게 국수적, 낭만적이었음을 반성, 민족과 민중을 모두 중시 우리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찾음(조선후기 실학주목, 고대사·조선사를 발전적으로 이해 노력) | |
| | 중심 인물 | 안재홍 | 조선상고사감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발전, 고대국가 사회발전단계를 해명 신민족주의와 독창적 이론 제시, 이에 의거 극좌와 극우를 배격하고 만민공생의 통합된 민족국가 건설 도모 기타 저서 불함철학대전·조선철학(우리나라의 전통철학을 정리) |
| | | 정인보 | 민족정기 고양노력(조선시대 양명학과 우리나라 5천년의 일을 정리), 광개토왕비문 연구 , 일본의 고대사 왜곡 시정 기여(일본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 기존의 일본인은 "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을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신라 등을 깨고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는 ' 도해파(渡海破)의 주어를 고구려로 보아 "고구려가 왜를 깨뜨리고 백제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는 전혀 상반된 견해제시 |
| | | 문일평 | 세종과 실학자의 민족·민중·실용지향 높이평가, 대미관계 50년사(국제관계, 실리적 감각필요) |
| 유물사관 (唯物史觀) 등장 1933 | 성격 | 인류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오직 물질(유물唯物)적인 생산력이고 이것의 변화에 의해 사회의식의 모든 형태(정치제도, 관념, 법률, 철학, 종교)도 변화한다는 역사발전의 5단계(원시 공산→고대 노예→중세 봉건→근대 자본주의→공산주의)를 강조 결국, 자본가계급을 폭력으로 타도함으로써 역사발전의 최후 단계인 공산주의의 완성이 온다고 주장→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각성을 촉구, 계급보다 민족의 우선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역사학과 갈등 | |
| | 중심 인물 | 백남운 | 연구의 업적 처음으로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세계의 여러 민족과 같은 궤적에서 일원론의 변증법적 역사발전 법칙에 의해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국 이전까지는 원시공산제 사회, 삼국시대는 노예제 사회, 신라통일 이후 조선시대까지는 동양적 봉건사회, 개항 이후는 |

| | | | |
|------|--------|--|--|
| | | | <p>이식 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했으며, 자본주의 맹아론 연구도 시작하고 있었다. 이는 토지 국유제, 중앙집권적 관료제 등 아시아적 특질을 정체적 특질로 보지 않고 보편적 발전단계인 봉건제의 한 유형으로 파악한 때문이었다. 이는 봉건제 결여라는 당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에 전면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p> |
| | | 연합성 민주주의 제창 | 좌익역사가 중에서 비교적 온건한 인물로서 해방 후에는 양심적인 지주, 자본가들과 손잡고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연합성 민주주의를 제창 |
| 진단학회 | 성격 | 청구학회(日 어용단체)의 한국사 왜곡에 대한 반발과 유물사관과 민족주의 역사학을 모두 거부→순수학문으로서 역사학을 전공 | |
| | 중 심 인물 | 손진태 | 해방후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계승, 계급적 화해를 전제로 자주민족국가 수립 민족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 강조 |
| | | 기타 | 이병도·이상백·김상기 등(와세다대학 출신 역사학자)과 이윤재·이희승 등(국어학자)와 송석하·손진태 등(민속학자) 등 참여 |